

옛 틀을 버리고 마리아나의 새 틀로

복음으로 여는 요한계시록

다니엘12:1-4, 요한계시록 22:18-21

정운돈 목사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응답을 얻고 저희들이 치유를 받고 힘을 얻는 한 주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체험하는 캠프인생,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들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체의 흐름, 의미를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는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재미있고 의미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알게 된다. 수학도 어려운 문제를 풀면 더 기쁨이 있지 않은가.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알고 나면 너무나도 행복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진 이단들이 사람들이 속이곤 했다. 어렵지 않은데 성도들이 워낙 공부하지 않는데, 이단들이 자기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이지만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다. 사실 우리도 잘못된 부분이다. 다시 한 번 요한계시록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새로운 시간되기를 축원한다. 요한계시록은 편지형식이지만서도 묵시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에게는 어렵지 않다. 말하자면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404절이 있는데 309절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다.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역사, 내용,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되는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의미는 로마구나.’ 로마의 속국 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는 멸망하리라.’ 하면 로마사람들이 잡혀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비밀번호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다. 이세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알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세벨은 누구이다.’ 금방 아는 것이다. 구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오히려 신약의 내용이 훨씬 쉽다.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키는 바로 숫자이다. 두 감람나무, 두 짐승, 두 증인, 일곱 교회, 일곱 대적, 일곱 인, 일곱 나팔, 7이 많이 나온다. 12, 24, 14만 4천, 24장로, 숫자가 많이 나온다. 14가 다윗의 숫자인데, 42달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42달이라고 하면 잘 모른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42는 모든 세대를 말한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14대가 3번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42달인 것이다. 그러니까 한 시대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666을 바코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666이 있었다.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공산당, 무슬림, 카스트 제도, 이데올로기. 시대마다 있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네 가지 관점으로 봐야한다. 요한계시록은 그 때 당시 초대교회 AD 95년경에 쓴 성경이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시켰다. 그 후로 몇십 년이 지났는데 본격적으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러한 환상과 핍박이 앞으로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핍박이 세 번 나온다. 6장에 나오고, 8, 9장에 나오고, 16장에 나온다. 6장에서는 여섯 인을 때는 환난이 나오고, 8장, 9장에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16장에서는 일곱 대적, 더 센 재앙이 나온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보면 인생 전반기에 여러 가지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중년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말년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누구겠는가.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맞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12장에 나오는 용에 의해서, 또 짐승같은 인간들이 음녀를 이용해서 세상권력과 세상적인 타락문화를 틈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트리는 것이다. 전도할 때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처럼 나쁜 일도 두 개가 하나 되면 우리는 다 무너진다. 살아남는 자가 바로 14만 4천이다. 6장에 보면 인을 때는 핍박이 나온다. 그런데 7장에 보면 14만 4천 구원이 나온다.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환난, 어려움이 있으면 이기고 남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신천지에는 ‘이긴 자라고 말한다. 이단은 조금씩 틀린다. 약간만 연구해보면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워낙 성경공부 안하고 예배 대중 드리니까 신천지한테 넘어가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로 만원 줄 테니까 강의 기록서를 쓰라고 한다. 그렇게 신천지에 넘어가는 대학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도 말씀 들으면 안 넘어가고 신천지 이야기 들으니가 넘어간다. 마귀 세력이 그렇게 세다. 우리 체질이 그렇다. 복음 이야기는 잘 안 맞는데 나쁜 것 할 때는 그렇게 잘 맞는다. 사람 죽이는 일에는 너무나도 맞는 것이다. 여러분은 살리는 체질이 되기를 바란다. 율법체질이 잘 맞는 것이다. 신천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신천지 말씀을 어기면 지옥간다. 멸망한다.’ 하는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 구원 받았음을 알기를 바란다.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알면 넘어가지 않는다.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예수 믿는 여자를 핍박한다. 거기서 이기는 자가 일어난다. 14장에 보면 14만 4천명이 일어난다. 12는 구원, 선택의 숫자이다. 12 굵하기 만 이천을 하면 14만 4천이 된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식한 신천지는 14만 4천이 되면 영생한다고 하는데 20만 명이 넘

었다. 그러니까 시험쳐서 합격하는 사람이 14만 4천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바꾼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꼭 상징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유적이지만 편지형식, 시 형식, 묵시형식을 띄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앞부분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밧모 섬에서 세례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 ‘아시아에 일곱 교회에게 이 편지를 전하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까지 보내라.’ 그것이 2장, 3장이다. 그것은 그 때 당시 아시아에 있는 일곱교회의 잘못된 점을 꼬집는 편지를 보낸 것이지만 300년, 500년 후에 있는 교회도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다. 한국, 미국, 영국, 유럽에 있는 교회도 그 잘못을 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도 세 종류로 말하고 있다. 잘못된 하는 교회, 칭찬만 듣는 교회, 잘못도 하고 칭찬도 받는 교회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생각되는 성도들도 있다.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없다.(웃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성도가 교회이다.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이다. 노회도 교회이고, 총회도 교회이다. 한국 교회가 잘 하기도 하고 못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갱신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캠프요원과 빛의 사자들 이니까. 그리고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땅에서 자꾸 넘어트리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 당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꼭 나오고 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위 24장 장로를 신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 12는 선택의 숫자, 24는 신구약의 12지파, 12제자로 선택의 숫자이다.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 세 번을 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에 와서 22장 마지막 장이 되기까지 환상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보여주는데 그것이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다. 그 안에 세 번의 큰 환난이 있다. 6장의 일곱 인을 때는 첫, 8장, 9장에 일곱 나팔, 16장에는 일곱 대적의 고난이 있다. 꼭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려준다. 6장 전, 5장에 그런 그림을 그려준다. 7장에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소망을 준다. 14장에 구원받은 백성, 15장에 하늘 나라의 그림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소망을 준다. 그러다가 17장, 18장, 19장에는 두 짐승에 의해서 사회를 혼란시켰던 두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 나온다. 18장에는 음녀를 움직였던 두 짐승이 나오는데 권력자 이단종교이다. 그것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거짓 선지자이다. 이단화, 문명명과 같은 이단 선지자가 백성들을 현혹해서 그 백성들이 떨어진다. 우리도 환상과 어려움 속에서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결국 19장에 가면 용과 두 짐승을 움직였던 12장에 옛 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뱀 자라고 한다. 마귀를 말하는 것이다. 잠시 묶였다가 잠시 놓이게 되는 마귀를 한다. 그 때 완전히 잡혀서 지옥 속에 들어가는데 그 때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가 있고, 청소년 때 때렸는데 정신 못 차리고, 중반기 때도 쳤는데 정신 못 차리고, 후반기 때도 정신 못 차리고 성공도 못하면서 헛갈리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인생이 많다. 복음가진 우리도 헛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한 번도 집중 못하고 살지 말라. 주님은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지만 너는 울바르게 이기라는 것이다. ‘마귀가 역사하고 세상 문화, 종교, 거짓 선지자가 너희를 유혹할지라도 절대 지지 말고 끝까지 이겨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주님이 천사와 함께 응원한다는 것이다. ‘천국에 곧 들어가게 되면 영광이 있으니까 이겨라’ 용기와 희망,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싸움에 지지 말라는 것이다. 왜인가. 예수님은 이미 이셨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스도만 정확히 알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이기라는 것이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라.’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결국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아무것도 너희 털을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 앞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청년이 상담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악과도 만들고 죄 짓게 만들었나요?” 그래서 설명해줬다. 내가 백 만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표를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님, 불공평하게 왜 나에게만 주세요?’ 하겠는가? 그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라면 영원토록 죄악의 종결로 지옥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주셨음이 너무 감사한 것이다. 여러분 중에 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있는가. 그런 사람 있으면 나에게 데려와라. 그러면 나는 목회자 안 할 것이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말씀하셨다. 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를 찾아서 두드리면 되는 것이다. 이번엔 제주도에 갔는데, 특별히 서귀포에 흑암이 꺾어서 만나는 아이들마다 영접하는 것이다. 류목사님이 전도는 쉽다고 하셔서 우리는 캠프 왔는데 얼마나 어려운지.(웃음) 그런데 복음을 알고 캠프를 갔더니 다음에는 캠프기간을 더 늘려야겠다고 말하더라. 우리가 결론내리고 완전 복음으로 결론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을 믿는다. 그 인생캠프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1.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와 회복하고 깨트려야 할 잘못된 틀이다.

(1)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100년 정도 지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 한국교회도 130년이 되니까 타락하고 문제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갱신해야 한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2장 14절에 보면 빌람의 교훈과 니콜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고 책망하고 있다. 이들은 네피림과 같이 세상의 정욕과 타락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깨지 못한 세속적인 틀이었다. 주님은 그것을 깨부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2)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용납한 것과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대마다 여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많았다. AD 1세기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다. 지금도 여신 섬김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주교 종교이다. 얼마 전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얼마 전에 마리아 승천기념식을 하지 않았는가. 성경과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이번에 외부에서 천주교 미사를 드리더라. 우상숭배이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리아가 사단의 머리를 밟고 있는 형상이 있다. 누가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는가.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다.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 줄 아는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녀를 섬기고 있는 여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있다. 천주교가 여기에 나와있는 말세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말이 많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음녀와 적그리스도 이세벨이, 우상숭배하는 음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똑같다. 그러나 꼭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다. 안상홍증인회는 안상홍이 죽으니가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지 않은가. 자유주의신학자들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한다. 페미니즘, 여성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상징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꼭 성경으로 말해야 하는가.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고 하는데, 여신 이세벨을 섬기면서 이렇게 속고 있다.

(3) 세월이 지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차갑지고, 뜨겁지도 않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3장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가. 믿지 않은 것도 아닌데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영적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한 번 믿어야 하지 않았는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제면 무엇을 하던지 다 안 된다. 우리가 옹인해야 할 어머니마찬가지가 바로 복음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복음 인생, 캠프 인생에 올인하고, 후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란트를 세우는 일에 올인을 하고,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는 이 일에 올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행복하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달라야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하고,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 '못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할게요'라고 해라. 인정받고 쓰임 받기 쉽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죽으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의 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해야 한다. 그래야지 흑암이 꺾인다. 여러분이 '사단이 물러간다. 흑암이 꺾여라.' 하면 꺾이겠는가. 아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참을 것은 참고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감사해야지.'하면 흑암이 꺾인다. 이것이 예수 믿는 체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란다. 쉽고도 어렵다. 당연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2.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라나타의 새 틀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다.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다. 공동번역에서도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NIV 영어 성경에서도 'amen come Lord Jesus' 소망이고 명령이고 간절함이다. 그렇다면 마라나타의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1) 마라나타의 신앙이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오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만회는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사람인가 아니다. 이것만 알아도 안 믿는다. 워낙 성경공부를 안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상 담소를 못가도록 보호하는 보호서를 가지고 다닌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옳은 것, 틀린 것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겠는가. 거기서 성경을 놓고 이야기해보면 신천지가 아니라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니까 그런다. 그것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짓 아버지가 바로 사단이다. 불신자도 그런 것 하지 않는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다. 1년에 2만 명씩 넘어가고 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있다. 이 환을 가져야 한다. 자꾸 신천지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가 신천지가 있다고 생각시켰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다. 이 말세지말에 세계 복음화 할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데, 무식한 신천지한테 기준교회가 당하고 있다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는가. 그들을 이겨낼 정도로 복음을 잘 공부해서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다 건져내야 한다. 물론 머리에 박힌 것은 죽어도 안 빠지지만, 한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이다. 1장 5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라' 이만회가 죽었다가 먼저 났는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믿을까 고민하겠는데, 곧 죽을 것이다. 이만회 죽으면 많이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다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치유해야 한다. 우리교회 절반이 신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면 나쁜 것인가. 아니다. 돌아온 분들은 얼마나 진실하게 믿는지 아시는가. 불

쌍하고 착한 사람들이다.

(2) 우리를 괴롭힌 마귀는 결국 유향 못에 던져질 것이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줄 믿어라. 그것이 마라나타 신앙이다.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다. 이단이 넘쳐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진리를 분별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향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잠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단, 거짓 선지자는 시대 시대마다 있었다.

(3)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도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주셨다는 믿음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다. 신천지는 과연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그 모습이 잠금 같고, 그 바닥이 유리 같다고 말한다. 그 모든 성곽이, 21장 19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남보석은 사파이어, 녹보석은 에메랄드, 보석으로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최고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단장하고 꾸며놓은 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 땅의 삶은 그냥 지나간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다고 무시하면서 대중 살라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부러워할 것도 없다. 천국에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고 삼성 그룹 살 수 있을 것이다.(웃음)

(4)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 곳은 사망이나 질병이나 눈물이나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마라나타의 믿음이다. 이번에 캠프를 갔더니 어떤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에게는 위도가 필요해요.'말했는데, 강단에서 이사가 40장의 말씀이 딱 나와서 '하나님이 캠프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느꼈다고 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갔음이라' 마라나타의 믿음이란, 결국 이 땅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행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엄청난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전도캠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CVDIP를 적용해 보겠다.

1. 언약과 마라나타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전도캠프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2. 비전과 영적 서밋이다. 비전이라는 것은 다 보였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본다. 그것이 영적 서밋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역사와 영적인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것이다.

3. 꿈과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다. 내가 어렸을 때 만화책을 보는데, 제일 보기 싫은 만화가 바로 뒤쪽이 찢어진 만화책이다. 앞이 찢어지면 상관 없는데 뒤가 찢어지면 기분이 안 좋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 되서 요한계시록이 결론이다. 아멘으로 끝난다. 결론이 멋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이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무 멋진 것이다. 우리의 꿈은 바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축복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신천지에게도 전달해서 돌아오게 하는 꿈을 꾸기를 바란다. 최고의 꿈이다.

4. 기도와 이미지이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복음과 그리스도로 이해될 때까지 깊은 묵상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묵상을 깊이 하면 은혜 받는 부분이 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의 책을 많이 봤다. 결국에는 다 바르게 해석이 되었다. 여러분도 깊은 묵상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의 것으로, 최고의 복음의 책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원한다.

5. 실천과 직뚱이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란다. 새로운 영적인 깊음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요새는 인터넷, 유튜브, 요한계시록에 대해 강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 시간만 내면 다 나온다. 너무도 좋은 시대이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실스런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복음, 다락방메시지를 핵심으로 해야하겠지만 다른 공부들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다 버리는 것이라면 요셉을 애굽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세상의 것도 다 소화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재해석, 재적용해서 복음의 가치를 높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외골수적으로 무식하게 믿지 말고, 우리 안에 써워서 도전할 것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고 우리 교회가 로컬과 파라의 모든 면에서 모델적인 응답의 주역이 되길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지혜와 충명을 주시사, 영권을 찬만 배나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령충만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마음대로 농락하고 있는 이 말씀을 원래 우리 것이오니 은혜를 내려주시사 저희들이 잘 소화하고 이해해서 복음의 대로를 열수 있는, 절대적인 문을 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엘리트들이,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넘어갔을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